

가족, 어린이, 조부모 및 노인의 희년 교황 레온 14세의 강론 (2025년 6월 1일 주 일).

결혼은 이상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사이의 참된 사랑의 모델, 즉 전적이고 충실하며 열매 맺는 사랑입니다. 이 사랑은 두 사람을 '한 몸'으로 만들어 하느님의 형상대로 생명을 낳을 수 있게 합니다.

2025-6-2

가족, 어린이, 조부모 및 노인의 희년 교황 레온 14세의 강론

"저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일관된 모범이 되어,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행동하고, 순종을 통해 자유를 교육하며, 항상 자신의 유익과 그것을 증진할 수 있는 수단을 추구하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자녀 여러분,부모님께 감사하십시오: 생명의 선물과 생명이 매일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에 대해 "감사합니다"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(출 20:12 참조). 마지막으로, 사랑하는 조부모님과 어르신 여러분, 저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혜와 부드러움으로, 오랜 세월을 통해 배운 겸손과 인내로 지켜보시기를 권합니다.

가족 안에서 신앙은 식탁 위의 빵과
마음의 애정처럼 대를 이어 삶과 함
께 전승됩니다. 따라서 가정은 우리
를 사랑하시고 항상 우리의 선을 원
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
적인 장소입니다."

pdf |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
from [https://opusdei.org/ko-kr/article/
gajog-eorini-jobumo-mic-noinyi-
hyinyeon-gyohwang-reon-14seyi-
gangron-2025nyeon-6weol-1il-juil/](https://opusdei.org/ko-kr/article/gajog-eorini-jobumo-mic-noinyi-hyinyeon-gyohwang-reon-14seyi-gangron-2025nyeon-6weol-1il-juil/)
(2026-1-19)